

# 오픈액세스 단행본 생태계에서 도서관의 참여 활동 유형과 역할 분석\*

## Analysis of the Participation Types and Roles of Libraries in the Open Access Monograph Ecosystem

이 재 윤 (Jae Yun Lee)\*\*

### 목 차

- |                               |                                  |
|-------------------------------|----------------------------------|
| 1. 서 론                        | 4. 도서관 출판 데이터를 통한 직접 출판 활동 현황 분석 |
| 2.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과 도서관의 역할    | 5. 정책 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의 전략적 대응        |
| 3. 해외 대학도서관의 단행본 OA 참여 유형과 역할 | 6. 논의 및 결론                       |

### 초 록

이 연구는 오픈액세스(OA) 단행본 생태계에서 도서관의 참여 활동 유형과 전략적 역할을 분석하고 국내 도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과 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Library Publishing Directory 연구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도서관 출판 활동에서 단행본의 비중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은 BPC 기반, 기관 지원, 도서관 컨소시엄, 인쇄본 판매 병행, 프리미엄/엠바고,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 등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도서관의 역할은 재정 조정자, 집합적 투자자, 지식 인프라 파트너, 출판 전략 설계자, 가치 기반 평가자로 정리되었다. 또한 도서관 출판에서 단행본과 공개 교육자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직접 출판 주체로 참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도서관이 단순한 수집 기관을 넘어 단행본 OA 생태계의 재원 구조와 인프라 형성에 참여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내 도서관 역시 협력적 재원 조달과 가치 기반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단행본 OA 생태계 구축의 핵심 행위자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articipation types and strategic roles of libraries in the open access (OA) monograph ecosystem and explores implications for Korean libraries. The study examines OA monograph business models,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the Library Publishing Directory research dataset to investigate the proportion and characteristics of monographs in library publishing activities. The findings identify six OA monograph business models: BPC-based, institutional support, library consortium, print-sales-supported, premium or embargo, and membership/shared infrastructure models. Libraries were found to perform five strategic roles: financial adjusters, collective investors, knowledge infrastructure partners, publishing strategists, and value-based evaluators.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monographs and open educational resources are increasing within library publishing and that libraries are expanding their role as direct publishing entiti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libraries are evolving beyond traditional collecting institutions into strategic actors shaping the funding structures and infrastructures of the OA monograph ecosystem. Korean libraries therefore need to expand their role as key actors in building a sustainable OA monograph ecosystem through collaborative funding models and value-based evaluation frameworks.

키워드: 오픈액세스, 단행본, 공개교육자료, 도서관 출판, 대학도서관, OA 비즈니스 모델

Open Access, Monographs, Open Educational Resources, Library Publishing, Academic Libraries, OA Business Models

\* 이 논문의 제3장 해외 사례 분석과 제4장 도서관 출판 데이터 분석 내용 중 일부는 KERIS 이슈리포트(RM 2025-14)를 기초로 연구 내용을 심화하고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명지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memexlee@mju.ac.kr / ISNI 0000 0004 6490 0075)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5-33,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00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오픈액세스(Open Access, 이하 OA)는 지난 20여 년간 학술지 출판을 중심으로 빠르게 제도화되어 왔다. 주요 연구기금기관과 대학, 도서관은 연구 성과의 공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OA 정책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학술지 영역에서는 골드 OA, 하이브리드 OA, 전환 계약 등 다양한 모델이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모델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OA로의 전환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Yoon et al., 2025).

이에 비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학술 성과물로 기능해 온 단행본은 OA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Eve, 2014; Ferwerda et al., 2017). 단행본 역시 OA로 공개될 경우 인용과 이용이 증가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Maron, 2023; Snijder, 2016), 장기간의 연구와 집필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구조와 유통 방식이 학술지와 상당히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학술지 OA에서 활성화된 논문처리비(Article Processing Charge, APC)와 같은 저자 지불 기반 모델을 단행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Adema & Stone, 2017). 그 결과 단행본 OA는 학술지 OA에 비해 확산 속도가 더뎠으며, 정책과 제도 측면의 논의 역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해외 OA 관련 연구 동향을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한 정재민과 김완중(2022)의 연구에서는 단행본 OA와 관

련된 토픽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최근 학술지 O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윤정원, 2024; 장문석, 2023; 정경희, 2023; 정경희, 이재윤, 2023), 오픈데이터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박희진, 김지성, 2025; 배서영, 김지현, 2023; 이해경, 이영구, 2023; 장수현, 남영준, 2024), 단행본 OA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유일하게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지역자료 장서를 위해 OA 리포지토리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김보일, 2024)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 학술 출판 환경에서는 단행본 시장의 구조적 위기와 맞물려 단행본 OA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Thompson (2005)은 학술지 위기(serials crisis)에 대응되는 '단행본 위기(crisis of the monograph)'를 언급했는데, 이는 도서관 예산이 고가의 학술지 구독에 집중되면서 단행본 구입 예산이 급감한 현상을 의미한다. Greco(2024)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서 2021년까지 역사학 분야의 단행본 평균 가격은 12.99% 인상되었는데, 학술지 평균 가격은 64.50% 증가하여 증가율이 거의 5배에 달하였다. 이 때문에 상업 출판사의 출판 중수 감소와 대학출판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단행본 출판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단행본의 OA 출판은 기존 시장 기반 모델의 대안적 선택지로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Fyfe et al., 2017).

2020년대 들어서 연구기금 기관이 학술지 논문에 이어서 단행본까지 OA 의무화 정책에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영국 연구혁신청(UK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UKRI로 표기)은 2024

년 이후 출판되는 연구지원 성과 도서에 대해서 출간 후 12개월 이내 OA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다(UKRI, 2023). 이런 정책적 전환은 출판사, 도서관 등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단행본 OA에 대한 대책 마련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행본 OA와 관련된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연구기금기관이나 출판사 뿐 아니라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이 핵심적인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은 재정 지원(개별 보조금, 공동 펀딩 참여), 수집 및 발견성 워크플로우 통합, 메타데이터/식별자/플랫폼 연계, 조직과 역량 개발 등 다층적 활동 조합을 통해 단행본 생태계의 OA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도서관은 출판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학출판부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단행본 OA에 관한 논의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해외 도서관이 OA 단행본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활동 사례를 파악하고, 도서관의 관련 활동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재원 조달 구조) 및 인프라 조건과 결합되어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도서관계가 단행본 OA와 관련된 정책과 실무를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 연구질문 1: 단행본 OA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유형은 무엇이며, 각 모델에서 도서관의 재원 조달 및 기여 방식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2: 도서관의 OA 단행본 참여 활동은 어떻게 유형화되며, 생태계 내에서 도

서관이 수행하는 전략적 역할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3: 도서관이 주도하는 직접 출판 활동에서 단행본의 비중과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4: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OA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도서관이 적용해야 할 가치 기반 평가 원칙과 의사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기 위해서, 단행본 OA에 관한 연구 범위를 1) 재정적 지원과 비용 재구성, 2) 거버넌스/정책/평가기준 수립, 3) 플랫폼/유통/발견성 강화, 4) 출판 운영 및 인프라 결합, 5) 도서관 출판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과 도서관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발표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구질문 1 및 2와 관련된 이론적 기반을 확보한다. 그 다음으로 해외 OA 단행본 출판에서 도서관 참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 사례들을 분석하여 연구질문 1과 2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한다.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도서관 참여 사례의 실증적 근거를 교차 비교하여 활동 유형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 양상을 제시한다.

연구질문 3과 관련하여 도서관 출판 디렉토리(Library Publishing Directory; 이하 LPD로 표기) 연구 데이터셋(Library Publishing Coalition,

2024a)을 활용하여 도서관 출판 활동의 확산 양상과 단행본 취급 비중을 분석한다.

연구질문 4와 관련하여, 맨체스터 대학 도서관과 루벤 가톨릭 대학교(KU Leuven)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이 OA 단행본 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실무 체계를 준비하는 전략적 평가 방식과 기준을 고찰한다.

이후 2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과 모델별 도서관 역할을 이론적으로 정리한다. 3장에서는 해외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관 참여 유형의 구조적 분화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도서관 출판의 개념과 LPC 활동을 정리하고, LPD 데이터의 단행본 관련 항목을 분석하여 도서관 출판 활동의 확산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UKRI 단행본 OA 정책에 대한 논쟁과 대학도서관의 OA 단행본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어떠한 평가 기준과 전략적 판단 체계를 형성하는지를 고찰한다. 6장에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한국의 단행본 공개와 서비스 현실에 비추어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도서관의 전략적 역할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1.3 선행연구

이 연구에서는 2020년대에 진행된 사례와 문헌들 위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로는 2010년대에 단행본 OA와 도서관의 역할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핵심 선행연구 3건(Collins & Stone, 2014; Ferwerda, 2019; Siegert, 2019)을 검토한다. 이 연구들은 OA 단행본에 대한 논의의 성숙도와 생태계의

발전 상태에 따라서 상이한 연구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5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 선행연구들이 단행본 OA와 도서관의 역할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살펴본 후에 5년 동안 달라진 부분을 다룬다.

검토한 문헌들은 5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일관된 논지를 유지한다. 첫째, 도서관은 인문사회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인문학자의 실험실(humanist's laboratory)이자 학술 생태계의 핵심 엔진이라는 점이다. 둘째, OA 단행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서관의 기존 워크플로우 및 발견 시스템(Discovery Systems)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셋째, 상업적 유통망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정책이 연구자의 이용 경험을 저해하며, 이를 중재할 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역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Collins와 Stone(2014)은 영국 4개 대학 도서관 사서 및 리포지터리 매니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2014년 당시에는 OA 단행본 비즈니스 모델이나 인프라가 실무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인터뷰를 통해 사서들이 느끼는 예산 운용의 모호함과 발견성의 한계 등 생생한 현장 지식을 포착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 연구는 사서들의 인식을 통해 OA 단행본이 기존 전자책 구매 정책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보여주었다. 당시에는 전자책 일반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OA 단행본 수서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

지 못했고, 장서로서의 발견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OA 단행본의 출판 제작 비용을 도서관 예산으로 지원할 방법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5년 후인 2019년의 연구들은 풍부한 진 사례와 시험적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으로 전환하였다. Ferwerda(2019)는 유럽 8개국의 현황 조사와 2,500명 이상의 저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국가별 시장 규모와 정책에 따라 다양한 OA 모델이 공존해야 하며, 저자들은 지식의 평등한 공유라는 윤리적 가치를 위해 이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도서관계가 OA 단행본의 원활한 유통과 발견성 확보를 위해 파편화된 메타데이터 체계를 통합하고 기존 예산을 재편성하는 협력 사업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Siegert(2019)는 단행본 OA와 관련된 도서관의 활동을 컬렉션 개발, 출판 서비스, 조직 및 역량 개발의 3개 범주로 정리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는 2014년의 인터뷰 연구가 던진 화두들이 5년의 기간 동안 여러 사례를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구체적인 업무 영역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Collins와 Stone(2014)의 연구에서 사서들이 토로한 단행본 OA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방법의 모호성 문제는, Ferwerda(2019)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여러 협력 사업을 통한 집합적 행동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다룬다. Siegert(2019)가 정리한 도서관의 3가지 역할

범주 중에서 컬렉션 개발은 3장에서 최근 사례를 통해 탐구하고, 출판 서비스와 조직 및 역량 개발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도서관 출판 현황 분석을 통해 최근 동향을 파악한다. 특히 Ferwerda(2019)가 조사했던 저자들의 단행본 OA에 대한 인식이 2020년대 중반의 OA 의무화 정책과 엮이면서 어떻게 논쟁화되었는지를 5장에서 살펴본다. 또한 Siegert(2019)가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더욱 심화, 발전된 형태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도 5장에서 다룬다.

## 2.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과 도서관의 역할

### 2.1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 유형

단행본 OA는 독자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지 OA와 유사해 보이지만, 출판 비용 구조와 학문적 관행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단행본은 장기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저술, 편집, 제작 과정이 필수적이며, 학술지 논문에 비해 단위 출판물당 비용이 높다. 이로 인해 단행본 OA에서는 단일한 비용 회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는 다원적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 왔다(open-access.network, 2025).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은 비용 부담의 주체, 운영 방식, 출판 과정에서의 책임 배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의 범주를 정리한 여러 문헌(Amaral & Furnival, 2023; OAPEN, 2020; Penier et al., 2020)이 있으나, 언급된 모델 범주는 대동소이하다. 또

한 기존 문헌에서 언급된 다양한 모델들 중 어느 하나가 단행본 OA 생태계를 주도하기보다는, 복수 모델이 병존하면서 일부는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Amaral & Furnival, 2023).

오픈액세스 생태계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3건의 핵심 문헌을 대상으로 비교 및 종합 분석을 거쳐서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문헌 3건은 단행본 OA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글로벌 가이드라인(OAPEN, 2020)과 연구 보고서(Penier et al., 2020), 그리고 도서관과 대학 출판부의 실무적 관점을 다룬 학술 논문(Amaral & Furnival, 2023)이다. Amaral과 Furnival(2023)도 OAPEN(2020)과 Penier et al.(2020)를 참고하면서 유형을 정리하고 있다.

대상 문헌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수익 모델과 재원 조달 방식을 분석하여 유사성 및 상충 여부를 검토하고 재분류하였다. BPC 기반 모델은 저자 측 비용 지불이라는 명확한 거래 성격에 따라 독립된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Knowledge Unlatched나 D2O와 같이 도서관들이 연합하여

비용을 분산하는 방식은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Embedded institutional support(Penier et al., 2020) 유형과 Institutional subsidy(OAPEN, 2020) 유형은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기관 지원 모델 유형으로 통합 설정하였다. 또한 Amaral과 Furnival(2023), 그리고 Penier et al.(2020)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인프라 공유 및 회원제 기반의 협력 모델은 개별 도서의 출판비를 넘어서서 생태계 유지 차원의 지원 방식으로 간주하여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정리된 6가지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BPC 기반 모델: 학술지 분야의 APC와 유사하게 출판 결정 시점에 출판에 필요한 도서 처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거래 구조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신진 연구자나 저

<표 1>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 유형

모델 유형	핵심 작동 방식	비용 부담 주체	주요 특징
BPC 기반 모델	출판 수락 시 도서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OA로 출판	저자, 소속 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비용 구조가 명확하나, 재정 격차에 따른 불평등 가능성 존재
기관 지원 모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재정, 인프라, 인력을 제공하여 OA 출판 지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적 운영 가능, 기관의 지속적 지원이 핵심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비용 분담	도서관 컨소시엄	집합행동 기반, 비용 분산 효과와 무임승차 문제 병존
인쇄본 판매 병행 모델	디지털 OA 버전 제공과 동시에 인쇄본 판매	출판사, 독자, 도서관	전통적 판매 수익을 보완적으로 유지
프리미엄/엠바고 모델	기본 버전은 OA, 고급 포맷 및 부가 서비스는 유료	출판사, 이용기관	접근성 확대와 수익 창출의 병행을 시도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	연회비나 공동 인프라를 통해 출판 비용 간접 지원	기관, 도서관	장기적 협력과 인프라 지속 가능성에 초점

개발국가 연구자들을 배제하게 된다는 문제가 크다. 또한 단행본을 주요 연구성과로 삼는 인문사회 분야는 오히려 BPC의 재원으로 사용할 연구비가 풍족하지 않기에 보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 2) 기관 지원 모델: 대학이나 연구소 등 소속 기관이 출판부의 운영 예산과 인프라를 직접 지원하여 OA 출판을 자체 해결하는 방식이다. 미시간 대학 출판부의 Fund to Mission처럼 대학 본부의 지원금과 도서관 예산을 결합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도서관과 출판부가 전략적으로 결합된 '서비스로서의 출판' 형태를 띤다. 이 모델은 출판 시장의 상업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의 학문적 가치를 우선하는 출판 사업에 적합하다. 다만 국립대학이나 재정적 여건이 양호한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하면, 특별한 외부 지원금이나 기금이 없는 기관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 3)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 여러 도서관이 연합하여 특정 도서의 OA 출판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모델이다. 학술지 OA 출판을 위한 공개조건 구독(Subscribe to Open: S2O) 모델의 단행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MIT Press의 Direct to Open(이하 D2O로 표기)이나 Knowledge Unlatched가 대표적이며, 도서관 예산을 출판 이후의 구매 단계가 아닌 출판 단계의 공동 투자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개별 도서관의 부담은 낮추면서 지식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 도서관이 컨소시엄에서 벗어나서 부담을 덜고 OA 혜택만을 얻고 싶은 무임승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결국 참여 도서관 수에 따라 모델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이나 행정적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
- 4) 인쇄본 판매 병행 모델: 디지털 판은 OA로 무료 제공하되, 소장 및 몰입형 독서를 원하는 수요를 위해 인쇄본을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Ithaka S+R 연구(Brown et al., 2023)에 따르면, OA 도서도 인쇄본 판매를 통해 평균적으로 권당 약 16,909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소수의 베스트셀러 때문에 높아진 수치이고 중앙값은 6,237달러 정도에 그쳤다. 그래도 OA 전환이 인쇄본 시장,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단행본 매출을 완전히 잠식하지는 않는다는 실증적 근거로는 충분하다. 결국 출판사는 OA를 인쇄본 판매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삼을 수 있으며, 인쇄본 매출을 통해 출판 비용 중 적지 않은 비중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병행 판매를 통해 출판 비용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우며, 베스트셀러 저자가 인세 등 상업적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 5) 프리미엄/엠바고 모델: 기본 텍스트는 무료로 공개하되,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 특수 포맷(ePub 등), 부가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제공하거나 특정 기간(엠바고) 후에 OA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JSTOR의 Path

to Open은 출판 후 초기 3년 동안은 구독 모델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이후 OA로 전환하는 점진적 전환 전략을 취한다(JSTOR, 2023). 이는 출판사가 가장 활발한 수익 창출 시기를 보호하면서도 장기적인 공공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출판 후 1년 이내 공개를 요구하는 UKRI의 단행본 OA 의무화 정책과 같은 연구 지원 성과물 공개 요건을 맞추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6)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 개별 도서의 출판비가 아닌 메타데이터 관리, 배포 시스템, 장기 보존 등 OA 생태계를 지탱하는 공용 인프라에 참여 기관의 연회비나 투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행본 OA 출판을 위해서는 책 자체의 편집과 제작에 드는 비용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배포하는 워크플로우 도구, OA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파일 배포 비용, OA 단행본 사용량 측정 기준 및 방법 등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한다(Sherer, 2023). 이런 유형의 사례로는 COPIM(Community-led Open Publication Infrastructures for Monographs) 프로젝트(COPIM, 2023)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 모델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개별 단행본의 출판 작업을 위한 비용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별도로 조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OAPEN(2020)에서는 개인들이 자금을 모아서 특정 도서를 OA로 전환하는 개인

참여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관 수준의 비즈니스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상의 모델들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특정 출판 프로그램이나 국가의 정책 환경에 따라 결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유형별로 언급한 대표 사례들도 다른 모델의 특징을 조금씩 결합하여 운영된다. 아무래도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복수의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가 현실적이다 보니, 최근에는 협력형 모델(collaborative model)이라는 명칭으로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을 자금 조달 협력으로,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을 인프라 협력으로 간주하여 함께 묶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리포트도 있다(Błaszczczyńska et al., 2023). 중요한 점은 각 모델이 단행본 OA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핵심 행위자, 특히 도서관의 역할도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다.

## 2.2 비즈니스 모델별 도서관의 역할

단행본 OA 생태계에서 도서관은 더 이상 출판 결과물을 수집, 보존하는 수동적 향유자에 머물지 않으며,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에 따라 생태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전략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각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도서관의 가용 자원(재정, 인력, 인프라)이 결합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검토하여 모델별 도서관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에 나타난 도서관의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근거로 역할 유형을 구분하였다. 도서관이 소속 저자의 BPC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행정적 중재 기능(Amaral & Furnival,

2023; Penier et al., 2020)을 재정 조정자 역할로 유형화하였다. 개별 구매 예산을 컨소시엄 기반의 공동 자금으로 전환하여 생태계의 자원 구조를 재설계하는 역할(OAPEN, 2020; Penier et al., 2020)은 집합적 투자자 역할로 유형화하였다. 메타데이터 표준화, 아카이빙, 발견성 강화 등 기술적 기반을 지원하는 활동(Amaral & Furnival, 2023; Penier et al., 2020)은 지식 인프라 파트너로, 도서관이 출판 인프라와 결합하여 기획 및 제작 공정 전반에 참여하는 고도화된 역할(Penier et al., 2020)은 출판 전략 설계자로 유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문지기 기능(OAPEN, 2020; Penier et al., 2020)은 가치 기반 평가자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개입 강도의 구분은 자원 조달의 주도권과 조직적 결합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Penier et al.(2020)이 제시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구분을 원용하여, 도서관이 직접 인력과 인프라를 투입하는 기관 지원 모델은 인프라 파트너 역할과 출판 전략 설계자 역할의 개입 강도를 '상'으로 평가하였으나, 외부 출판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BPC 기반 모델은 두 역할의 개입 강도를 '하'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재정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재정 투입 방향을 구독에서 출판으로 전환하며 행정적 중재를 수행하는 BPC 기반 모델은 '상'으로 판정하였다. 기관 내부의 자원을 조정하여 자체 출판부나 플랫폼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 지원 모델이나, 인쇄본 판매 수익을 보완적 재원으로 관리하는 인쇄본 판매 병행 모델은 재정 관리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중'으로

분류하였고, 도서관 컨소시엄이나 공유 인프라 모델은 재정 지출은 발생하나 도서관의 주된 기능이 개별적인 행정 중재보다는 공동 투자나 가치 평가에 집중되므로 재정 조정자로서의 개입 강도는 '하'로 평가하였다. 이런 개입 강도의 차이는 도서관이 각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단순한 비용 지불자에 머무는지, 아니면 출판 생태계의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개입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셋째, 도서관의 역할 유형화와 개입 강도 설정 결과를 다음의 3장에서 상세히 다루는 주요 단행본 OA 사업 사례들의 운영 방식과 대조하는 실증적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처럼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타난 도서관의 주요 과업과 자원 투입 방식을 기능적 관점에서 종합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별 도서관의 역할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마다 도서관의 개입 강도를 상/중/하로 구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BPC 기반 모델에서 도서관은 주로 재정 조정자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델에서 비용 부담의 주체는 저자나 연구비 지원기관이며, 도서관은 기관 내부의 구독 예산을 OA 출판 기금으로 재설계하고 집행하는 행정적 총괄을 담당한다. 또한, 특정 사업 방식이나 운영 체계의 정책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가치 기반 평가자로서 지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병행하기도 한다. 반면, 개별 도서의 제작이나 유통 인프라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둘째, 기관 지원 모델에서 도서관은 지식 인프라 파트너이자 출판 전략 설계자로서 가장 깊숙이 개입한다. 대학도서관이 대학출판부나

〈표 2〉 비즈니스 모델 유형별 도서관의 역할과 개입 강도(●: 상, ◐: 중, ○: 하)

도서관의 역할 비즈니스 모델 유형	재정 조정자	집합적 투자자	인프라 파트너	출판 전략 설계자	가치 기반 평가자
1) BPC 기반 모델	●	○	○	○	◐
2) 기관 지원 모델	◐	○	●	●	○
3)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	○	●	◐	○	●
4) 인쇄본 판매 병행 모델	◐	○	◐	○	○
5) 프리미엄/엠바고 모델	○	◐	●	○	◐
6)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	○	●	●	◐	●

기관 플랫폼과 결합하여 기획, 심사 관리, 디지털 워크플로 최적화 등 출판 전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서관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조직적, 기술적 역량을 제공하는 중추 기관으로 기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 예산을 조정하는 재정 조정자의 기능 또한 어느 정도 수행한다.

셋째, 도서관 컨소시엄(집합행동) 모델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핵심적인 집합적 투자자 및 가치 기반 평가자이다. 3장에서 소개할 MIT Press의 D2O 사례와 같이, 여러 도서관이 연합하여 전통적인 구매 예산을 공동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출판 생태계의 재원 구조를 재설계한다. 이때 도서관은 해당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며, 플랫폼 연계를 지원하는 지식 인프라 파트너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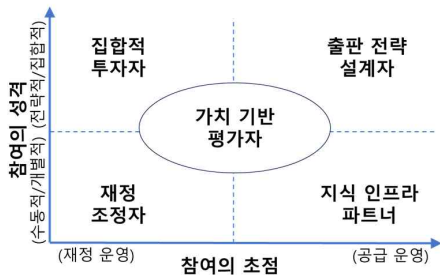
넷째, 인쇄본 판매 병행 모델과 프리미엄/엠바고 모델에서 도서관은 시장 보완자로서 재정 조정자와 지식 인프라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서관은 OA 버전을 이용하면서도 소장용 인쇄본이나 고부가가치 포맷을 구매함으로써 출판사의 수익 구조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Ithaka S+R 연구가 증명하듯 OA 전환이 인쇄 매출과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모델에

서 도서관의 개입은 출판 운영 자체보다는 시장 안정화와 발견성 강화라는 지원적 성격을 띤다.

마지막으로,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에서는 도서관이 집합적 투자자, 지식 인프라 파트너, 가치 기반 평가자라는 여러 핵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개별 단행본의 출판비를 넘어 메타데이터 관리, 장기 보존, 유통 시스템과 같은 공공재적 인프라의 유지·발전에 공동 투자하며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이는 단행본 OA를 특정 출판 성과가 아닌 장기적 학술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안정성 확보로 이해하는 전략적 관점에 부합하는 역할이다.

이상과 같이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 유형마다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개입 강도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 도서관의 역할이 가장 주도적이고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OAPEN(2020)에서 협력형 모델로 구분했던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과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이다. 이는 출판비용 조달에 동원할 수 있는 연구비가 풍족하지 않지만 단행본이 핵심 성과물로 기능하는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도서관이 공동행동을 통해서 단행본 OA 비즈니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5가지 도서관 역할은, 참여의 초점을 가로축으로 하고 참여의 성격/수준을 세로축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그림 1> 단행본 비즈니스 모델에서 참여의 초점과 성격에 따라 구분한 도서관의 역할

<그림 1>에서 1사분면에 위치한 출판 전략 설계자로서의 도서관은 전략적으로 OA 단행본의 출판 기획 및 제작 공정에 직접 개입하는 공급 중심의 고도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기관 지원 모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사분면에 위치한 집합적 투자자로서의 도서관은, 여러 도서관과 전략적으로 연합하여 재정 투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로서, 주로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 및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에서 나타난다. 3사분면에 위치한 재정 조정자로서의 도서관은, BPC 기반 모델에서 연구기금기관이나 모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재정을 OA 출판에 투입하는 수동적 정책 집행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4사분면에 위치한 지식 인프라 파트너로서의 도서관은, 프리미엄/엠바고 모델에서와 같이 OA 출판사와 협력하여 OA 출판 시장을 유지시키거나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에서와 같이 기술적 생

태계 유지를 지원하여 OA 단행본의 발견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위치한 가치 기반 평가자로서의 도서관은, 참여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모델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투명성을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도서관이 단순한 예산 집행자인 재정 조정자 단계에서 출발하여, 집합적 행동을 주도하는 공동 투자자와 가치 평가자를 거쳐, 출판 공정에 직접 관여하는 전략 설계자로 그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도서관은 단행본 OA 생태계에서 더 이상 외부의 수혜자나 구매자에 머물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에 따라 재원 구조와 유통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기능해야 한다.

### 3. 해외 대학도서관의 단행본 OA 참여 유형과 역할

이 장에서는 해외에서 주목받는 네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도서관의 참여 방식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이들 사례는 단행본 OA 출판에서 도서관의 전략적 역할이 제도화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1 재정 조정자로서의 도서관: TOME 이니셔티브

TOME 이니셔티브는 미국 연구도서관협회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미국대학출판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ses: AUP), 그리고 다수의 연구중심대학이 참여하여 2017년부터 5년간 유지된 파일럿 협력 사업이었다. 대학이 연구자에게 단행본 OA 출판을 위한 표준화된 보조금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는다(Maron, 2023). 참여 대학은 소속 연구자의 OA 단행본 출판을 위해 일정 금액(통상 권당 약 15,000달러)을 지원하고, 대학 출판부는 해당 단행본을 OA로 출판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은 연구지원 부서 및 대학 출판부와 협력하여 출판비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신청·심사·정산 절차를 운영하는 핵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Ball et al., 2019).

TOME 이니셔티브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OA 출판을 학술적 엄격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출판 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원고는 각 대학출판부의 엄격한 동료 심사와 편집 과정을 거쳐야만 출판이 승인된다. 이는 OA 출판물이 돈을 내고 출판하는 저품질 도서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전통적인 인쇄 출판물과 동일한 학술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작동하였다. TOME을 통해 출판된 도서들은 60개 이상의 대학출판부를 통해 출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은 자금의 집행 관리, 교수진에 대한 홍보, 그리고 OA 저작권 및 라이선스 교육 등을 담당하며 출판부와 긴밀히 협력하였다(Maron, 2023). 5년 간의 파일럿 기간 동안 20개 참여 대학과 67개 대학 출판부의 협력을 통해 150권 이상의 인문사회 과학 단행본을 OA로 출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TOME, n.d.). 이 프로그램은 단행본 OA를 개별 연구자의 선택 문제로 두지 않고, 대학

차원의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자리잡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TOME 이니셔티브는 단행본 OA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재원 부담이 여전히 개별 대학에 집중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즉, 구조적 전환이라기보다는 기관 내 재원을 재배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OA로 출판하기에는 성공했으나, 출판된 OA 단행본을 도서관 목록에서 원활히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는 못했다. 출판사와 도서관이 여전히 판매용 도서에 최적화된 유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OA 단행본에 필수적인 MARC 레코드나 메타데이터 표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었다(Molls & McCready,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TOME 이니셔티브는 단행본 OA 지원을 대학의 공식 정책과 예산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단행본 OA 전환의 정책 촉진자이자 재정 조정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OME 이니셔티브의 파일럿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에서 소개할 집합행동 기반의 사업들이 단행본 OA 출판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COPIM 프로젝트와 같은 단행본 OA 출판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 3.2 공동 투자자로서의 도서관: Direct to Open

Direct to Open(D2O)은 도서관이 OA 출판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 투자자로서 기능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술지 OA 전환 모델인 공개조건구독(Subscribe to Open: S2O) 방식을 단행본 출

판에 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2O는 메사추세츠공과대학 출판부인 MIT Press가 2021년 도입한 단행본 OA 전환 모델로, 다수의 도서관이 연간 참여비를 분담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디지털 단행본 신간 컬렉션을 OA로 공개하는 구조를 취한다(Brand, 2021). 컨소시엄 참여 도서관 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신간 단행본이 전 세계에 OA로 공개되며, 참여 도서관은 추가 비용 없이 인쇄본 구매 등의 선택지를 유지할 수 있다.

D2O는 컨소시엄 참여 도서관이 무임승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설정된 펀딩 목표액이 달성될 때만 해당 연도의 신간을 OA로 전환한다. 만약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해당 신간들은 비용을 지불한 참여 도서관들에게만 폐쇄적으로 제공된다.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도서관은 최소한 구간 접근권과 목표 미달 시의 신간 접근권을 보장받으므로, 참여에 따른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Strothmann, 2025).

또한 참여 도서관은 MIT Press가 보유한 2,650종 이상의 방대한 구간 아카이브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받으며, 별도로 MIT Press Trade books 컬렉션의 전자책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펀딩 목표액을 초과할 경우 참여 도서관들의 분담금이 기준 금액보다 낮아지도록 함으로써, OA 단행본 공개를 위한 기준 참여 규모가 달성된 이후에도 다른 도서관들이 추가로 참여할만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MIT Press, 2025a).

이렇게 촘촘하게 모델을 설계한 결과, D2O 출범 후 4년 동안 총 407개 도서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인문사회 207종과 과학기술 113

종 등 총 320종의 단행본을 OA로 출판하였다(MIT Press, 2025a). 2024년부터 목표 기준을 예정보다 조기에 달성하고 있으며, 2025년 초에도 이미 해당 연도의 펀딩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약 80권의 신간 단행본을 OA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search Information, 2025).

D2O는 2026년부터 듀크대학교 출판부(Duke University Press)가 공식 파트너로 합류하기로 결정되면서(MIT Press, 2025b) 특정 출판사의 모델을 넘어 대학 출판부 간의 협력적 생태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MIT Press의 신간 80권과 듀크 대학교 출판부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신간 20권을 포함하여 매년 총 100여 종이 전 세계 도서관들의 공동 지원을 통해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다(Knowledgespeak, 2025). 이에 더해 영국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의 골드스미스 출판부(Goldsmiths Press) 또한 2026년부터 4종의 신간도서를 D2O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다(MIT Press, 2026). 이렇게 수요자 집합행동에 기반한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이 복수의 출판사, 복수의 국가까지 공급자를 넓히는 확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3.3 지식 인프라 파트너로서의 도서관: Path to Open

Path to Open은 비영리 학술 플랫폼인 JSTOR가 미국학술단체협의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이하 ACLS) 및 50여 개 대학출판부와 협력하여 2023년 출범시킨 OA 단행본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초기 기획 단계

에서는 미시간 대학출판부 및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출판부가 중심 역할을 하였고 이후 다수의 다른 대학출판부가 참여하였다. 이 모델은 자금력이나 플랫폼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대학출판부들이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OA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2장에서 살펴본 '프리미엄/엠바고 모델'과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이 결합된 형태를 띠며, 도서관은 이 과정에서 지식 인프라 파트너이자 가치 기반 평가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Path to Open의 운영 메커니즘은 지연된 OA(Delayed OA)라는 독특한 절충안을 채택하고 있다. 참여 도서관이 지불한 연회비는 기금으로 조성되어 출판사에 권당 약 5,000달러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출판 후 초기 3년 동안은 참여 도서관에만 독점적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JSTOR, 2023). 엠바고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도서는 전 세계에 전면 공개된다. 여기서 도서관은 JSTOR라는 거대 인프라를 통해 통합 관리되는 수백 권의 고품질 학술서를 제공받는 파트너가 된다. 이는 도서관이 개별 출판사와 복잡한 계약을 맺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OA 단행본의 발견성과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서관은 이 모델 내에서 학술 생태계의 서지다양성(Bibliodiversity)을 수호하는 가치 기반 평가자로 기능한다. Path to Open은 ACLS와 협력하여 상업적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학술적 가치가 높은 비주류 인문사회과학 분야나 신진 연구자의 저술을 우선적으로 발굴한다(ACLS, 2025). 도서관은 단순히 콘텐츠

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지지하며 기금을 투입한다. 이는 도서관의 참여 동기가 단순한 이용권 확보를 넘어, 학술 출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출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공적 가치 평가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 가을 100종으로 시작한 Path to Open은 2025년 11월 기준 700종 이상의 단행본을 확보하며 순항 중이며, 2026년까지 총 1,000종의 OA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TOME 이니셔티브가 재정 조정자로서의 개별 대학 정책에 집중했고, D2O가 공동 투자자로서 특정 출판사의 전환을 이끌었다면, Path to Open은 도서관이 플랫폼 기반의 인프라 협력을 통해 중소출판사들을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포용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도서관은 이 모델을 통해 지식 인프라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술 자산의 장기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3.4 출판 전략 설계자로서의 도서관: Fund to Mission

기관 지원 및 출판 참여 모델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단행본 OA 출판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전면으로 등장한다. 미시간 대학 출판부(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이하 UMP)가 2021년 도입한 Fund to Mission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기서는 도서관이 단순한 예산 집행자를 넘어 출판 전략 설계자이자 재정 조정자로서 기능한다. 이 사업에서는 개별 도서 판매 수익에 의존하던 기존의 시장 기반 모델에서 탈피하여, 대학

본부의 지원과 도서관 커뮤니티의 기여를 결합한 삼각 자금 모델(three-pronged funding model)을 통해 안정적인 OA 전환 자금을 확보한다(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2).

Fund to Mission의 사업 구조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도서관의 역할은, 출판부와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출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출판 전략 설계자의 역할이다. 미시간 대학 도서관은 출판부의 경상 운영비뿐만 아니라 대학 본부로부터 추가 재원을 끌어내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학술 출판을 대학의 핵심 연구 인프라로 포용한다. 동시에 전 세계 200여 개 도서관으로부터 멤버십 비용을 모으고 외부 연구비 및 기부금을 통합 관리하는 재정 조정자로서, 저자에게 비용(BPC)을 청구하지 않고도 신간의 75% 이상을 OA로 전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설계하였다(Michigan Publishing, 2023).

또한, 이 모델에서 도서관은 OA 출판물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영향력을 담보하는 가치 기반 평가자의 기능을 강화한다. 2024년 성과 보고에 따르면, Fund to Mission을 통해 OA로 전환된 도서들은 유료 도서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전체 이용의 63%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여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라는 가치를 실증하였다(UKSG, 2024). 미시간 대학 도서관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여 기관들에게 OA 전환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단순한 콘텐츠 구독을 넘어 '미션 기반의 투자'라는 새로운 도서관 참여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Fund to Mission은 도서관이 출판 인프라와 결합할 때 단행본 OA가 기관의

사명과 어떻게 직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TOME이 정책적 조정에, D2O가 집합적 투자에, Path to Open이 인프라 협업에 방점을 두었다면, Fund to Mission은 도서관이 출판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서 생태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략적인 행위자로 기능하는 것이 본격화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장에서 분석한 네 가지 사례 모두 대학도서관이 대학출판부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단발성 프로젝트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 4. 도서관 출판 데이터를 통한 직접 출판 활동 현황 분석

##### 4.1 도서관 출판의 개념과 도서관 출판 연감

도서관 출판(Library Publishing)은 도서관이 출판사와 협력하는 단계를 넘어 직접 출판 실무의 핵심 공정 일부 혹은 전체를 진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도서관이 주도하여 학술적/창의적/교육적 저작물을 창출, 배포, 보존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한다(Library Publishing Coalition, n.d.). 이는 Lippincott(2017)가 밝힌 것처럼 도서관 출판이 단순한 저장소 서비스(repository hosting)가 아니라 콘텐츠의 생산 과정에 깊이 개입하며, 원저작물의 신규 출판 과정과 동료평가 또는 기관의 학문적 브랜드를 통한 품질 인증을 필수요소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도서관 출판은 자체 자원(인프라, 예산,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출판활동을 수행하면서 상업적 이익보다는 학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공익적 유통에 초점을 둔다. Lippincott(2017)은 이를 “정보 중개자에서 생산자로의 전환”이라 규정하며, 도서관의 기존 전문성(메타데이터 관리, 정보보존, 접근관리)을 출판기능과 결합한 새로운 지식생산의 생태적 전환으로 해석하였다. 결국 도서관 출판은 앞서 2장에서 제시한 5가지 역할 중, OA 단행본의 기획 및 제작 공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급 중심의 출판 전략 설계자로서의 면모가 가장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영역이다.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구인 도서관출판연합(Library Publishing Coalition; 이하 LPC)은 2013년 북미의 60여개 학술 및 연구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점차 북미 이외 지역의 도서관과 도서관 협력체로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LPC는 2014년부터 매년 참여 도서관들의 출판 활동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연감과 연구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다. 2024년 이후에는 조사 범위의 확대와 심층 분석을 위해서 격년 단위로 조사할 예정이다(Library Publishing Coalition, 2024b).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도서관 출판 SIG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2026년 조사 계획 및 참여 도서관 모집을 2026년 1월에 공고하고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Adams, 2026).

이 장에서는 2024 도서관 출판 연감(2024 Library Publishing Directory)의 내용과 공개된 LPD 연구 데이터셋(Library Publishing Directory research dataset)(Library Publishing Coalition, 2024a)을 분석하여, 단행본과 관련된 도서관

출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를 제시한다. 도서관 출판 연감의 조사에 응한 각 도서관의 출판 활동 중에는 일부 OA가 아닌 경우도 포함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이 OA 중심 여부 조사 항목에 대해서 ‘핵심 사명(Central to mission)’으로 응답하고, 출판물의 OA 비중은 ‘All’ 혹은 ‘Most’라고 응답하였으므로, 조사 결과는 사실상 OA 출판 활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2 단행본 OA 출판 관련 주요 통계 및 현황

2024 도서관 출판 연감에는 18개국에서 179개 기관이 조사에 응했고 이중에서 상세 응답을 제출한 기관은 167개였다. LPD 연구 데이터셋에 포함된 출판물과 관련된 항목을 분석하여, 북미(미국, 캐나다) 도서관과 이외 국가의 도서관으로 나누어서 <표 3>과 같이 집계해보았다. 북미와 여타 지역을 구분한 것은, LPC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에 참여 정도나 참여 도서관의 성격에 지역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조사에 참여한 도서관은 북미 지역의 도서관이 112개관으로 여타 지역의 55개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표 3>을 보면 조사 대상 167개 기관 중에서 학술지를 출판하는 곳이 142개(85.0%)로 가장 많으나, 단행본을 출판하는 도서관도 52.7%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또한 공개 교육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를 출판하는 비중도 54.5%에 달했다. 도서관 출판 연감의 대표 출판물(Top Publications) 항목을 살펴보면 공개 교육자료는 상당수가 인문계열의 어학 교재나

〈표 3〉 2024 LPD 데이터셋으로 파악한 출판물 유형별 취급 도서관 수와 비율

출판물 유형	북미(미국+캐나다)		북미 이외		전체	
	도서관 수	비율	도서관 수	비율	도서관 수	비율
학술지	100	89.3%	42	76.4%	142	85.0%
전자 학위논문	92	82.1%	30	54.5%	122	73.1%
학술대회 자료집	79	70.5%	36	65.5%	115	68.9%
공개 교육자료(OER)	69	61.6%	22	40.0%	91	54.5%
단행본	52	46.4%	36	65.5%	88	52.7%
데이터셋	72	64.3%	14	25.5%	86	51.5%
회색문헌	63	56.3%	16	29.1%	79	47.3%
포스터	52	46.4%	9	16.4%	61	36.5%
멀티미디어	45	40.2%	11	20.0%	56	33.5%
뉴스레터	39	34.8%	7	12.7%	46	27.5%
확장형 디지털 출판물	32	28.6%	5	9.1%	37	22.2%
데이터베이스	20	17.9%	3	5.5%	23	13.8%
조사 대상 기관 수	112	100.0%	55	100.0%	167	100.0%

이공계열의 프로그래밍 또는 기초 수치해석 교재 등과 같은 교육적 단행본이었다. 2014년 조사에서 단행본을 출판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1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도서관 출판의 중심축이 전통적인 학술지를 넘어 학술단행본과 교재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특성에서는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출판물 유형에서 북미 지역 도서관이 취급하는 비율이, 타 지역 도서관이 취급하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유일하게 단행본만은 북미 이외의 도서관이 더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개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여전히 북미의 도서관이 더 많이 취급한다는 점과도 비교된다. 즉, 북미의 도서관은 교재를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북미 이외의 도서관은 학술단행본을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북미 지역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대학들이 연구중심 대학 이외에도 교육중심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나 커뮤니티 칼

리지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타 지역의 참여 기관은 대부분이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심지어 텍사스 주립대학(Texas State University)은 단행본은 전혀 다루지 않지만 공개 교육자료는 63종이나 출판한 것으로 2024년 연감에 보고되어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출판사와 달리 도서관 출판 실무 차원에서는 공개 교육자료, 즉 교재와 학술단행본은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24년 LPD 연구 데이터셋에서 집계해보면 공개 교육자료와 단행본을 둘 다 취급하는 경우가 59개 도서관인데, 둘 중 하나만 취급하는 도서관이 61개관으로 더 많을 정도이다. 이는 도서관이 속한 모기관의 사명에 맞추어 단행본 OA 출판 활동도 교육적 목적과 학술적 목적의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대학에서 단행본 OA 출판을 고려할 때에도 대학 환경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

르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단행본 OA와 관련된 국가 정책에서도 학술단행본 OA 출판 사업과 교재용 단행본 OA 출판 사업은 별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단행본 출판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교재 출판에 특화된 Pressbooks는 Open Journal Systems(87개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57개관(34.1%)이 사용하고 있었고, 단행본 출판에 특화된 Open Monograph Press(이하 OMP)를 23개관(13.8%)이 사용하고 있었다. Pressbooks를 사용하는 57개 도서관 중에서 1개관을 제외한 56개 도서관이 공개 교육자료를 출판하고 있었고, OMP를 사용하는 23개 도서관 중에서도 1개관을 제외한 22개 도서관이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어서, 이 두 소프트웨어가 단행본 OA 출판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조사에서는 단행본 출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SBN 등록(ISBN registry)과 주문형 인쇄(Print-on-demand) 서비스가 새로운 조사 항목으로 추가되었고, 각각 77개관(46.1%)과 37개관(22.2%)이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저작권 자문(79.0%)이나 메타데이터(69.5%), 색인 및 목차 편집(12.0%) 등 단행본 출판 전반에 걸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도서관 출판은 더 이상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머무르지 않고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견고한 실무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행본 영역에서 도서관은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

를 넘어, 전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저작권 및 유통 인프라(ISBN 등록, 주문형 출판 등)를 직접 관리하는 전략적 출판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3장에서 살펴본 Fund to Mission과 같은 기관 지원 모델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실질적인 출판 운영 체계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국내 도서관 역시 직접 출판 역량 강화를 통해 단행본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대안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악화되고 있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개별 대학 단위의 사업보다는 연합체 형태의 사업을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 5. 정책 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의 전략적 대응

### 5.1 UKRI 단행본 OA 정책을 둘러싼 논쟁

2022년 12월, 영국 UKRI가 발표한 새로운 OA 정책은 단행본 OA 논의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UKRI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판되는 자금 지원 성과 도서에 대해 OA 출판을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약 350만 파운드의 기금과 권당 최대 1만 파운드의 BPC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UKRI, 2023; Booth, 2024). 그러나 이러한 위로부터의 강제 의무화 정책은 학계의 거센 반발과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주요 논쟁의 핵심은 과학기술 중심의 OA 모델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무리하게 이식하려

한다는 점에 있었다. Gandy(2023; 2025)는 단행본이 장기간의 사유와 엄격한 편집 과정을 거치는 문화적 산물임을 강조하며, 비용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의무화 정책이 학술적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일부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연구지원 성과 단행본의 OA 의무화를 포함한 단기적인 성과 지표와 규제 중심의 정책이, 단행본 집필이 갖는 느린 학문(slow scholarship)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Cupples, 2025; Wilmott, 2025). 학문적 경력을 쌓기 위해 신진 연구자가 OA 출판을 거부하는 유력 출판사를 찾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현실적으로 제기되었다(Gandy, 2025).

반대로 Batterbury et al.(2025)은 단행본 OA 의무화 정책이 지식의 인클로저(Enclosure)를 타파하고 개발도상국 연구자와 학생들의 지식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반박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상업적 학술 출판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독자들에게 고가의 구입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학술 연구는 이미 공적 자금으로 지불된 ‘공공재’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은 OA 출판에 동참하지 않는 유명 출판사의 명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연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연구자 주도 OA 출판사나 대학 기반의 비영리 OA 출판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영국 정부의 차기 연구 우수성평가(REF 2029)에서 단행본 OA 의무화를 적용하려던 지침이 잠정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재정적 부담과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 준수 모델이 지속가

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영국 사례는 단행본 OA 전환이 정책적 강제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도서관을 비롯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행위자들이 정책 환경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조정하는 전략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5.2 도서관의 가치 기반 평가 프레임워크

UKRI의 단행본 OA 의무화 정책 추진은, 대학 입장에서는 소속 연구자가 OA 단행본 출판 과정에서 겪는 비용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Gandy(2025)가 지적했듯이 고품질 단행본 출판을 위해서는 숙련된 편집자와 검토자의 막대한 노동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부담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BPC 기반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맨체스터 대학과 루벤 가톨릭 대학(KU Leuven)은 단행본 OA 정책 수립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예산 집행자를 넘어, 명확한 철학에 기반하여 생태계에 개입하는 가치 기반 평가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맨체스터 대학 도서관은 단행본 OA 지원을 단순한 정책 준수의 문제를 넘어 도서관의 가치를 반영한 투자로 정의하며, 단행본 OA 확보 원칙(Acquisition Principles)을 수립하였다(Booth, 2024; University of Manchester Library Office for Open Research, 2024). 이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무, 형평성, 투명성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다(Booth, 2024). 도서관은 감당하기 어

려운 고비용 BPC 모델을 지양하고(지속가능성), 대학의 개방형 연구 정책에 부합하는 혁신적 모델을 우선하며(사회적 책무), 신진 연구자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포용하는 서지다양성 증진 모델에 가점을 부여한다(형평성). 또한 상업적 출판사가 독점적인 행태를 혁신으로 위장하는 오픈워싱(openwashing)을 경계하면서 비용 구조와 장기 보존 계획이 명확하게 공개된 사업체제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가치 기반 접근은 루벤 가톨릭 대학의 공정 오픈액세스 기금(Fund for Fair Open Access) 운영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Verbeke & Mesotten, 2022). 루벤 가톨릭 대학은 기금을 전적으로 비영리 및 커뮤니티 주도 이니셔티브에만 투입하며, 특히 학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저자 부담 APC/BPC 모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Verbeke & Mesotten, 2022). 이는 도서관 예산이 영리 출판사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술 공동체가 주도하는 대안적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공정성에 기반한 평가 결과이다.

개별 대학들의 이런 실무적 기준은 최신 글로벌 지침 문서의 내용과도 방향성이 일치한다. 유럽 39개국의 정책을 분석한 PALOMERA 프로젝트는 도서관이 OA 도서 정책 수립 시 장기 보존 및 아카이빙 역할과 재정적 인센티브의 정합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한다(PALOMERA, 2024). 또한 UKRI가 영국 학계 및 출판계 단체와 공동으로 의뢰하여 Information Power가 작성한 소규모/전문 출판사를 위한 OA 전환 가이드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선택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기관 미

션과의 부합성과 저자 간의 형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Estelle et al., 2025).

결론적으로 맨체스터 대학과 루벤 가톨릭 대학의 사례, 그리고 유럽과 영국의 주요 지침을 종합해보면 도서관의 OA 단행본 의사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영리/커뮤니티 주도 모델을 통한 미션 지향적 투자, 둘째, BPC를 배제하여 저자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참여의 형평성 보장, 셋째, 기술적 상호운용성과 장기 보존을 담보하는 인프라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다. 국내 도서관계도 파편화된 단행본 공개 사례를 극복하고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단행본 OA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 기반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전략적 판단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 6. 논의 및 결론

### 6.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학술지 중심의 OA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단행본 영역을 주목하고, 해외 도서관의 참여 활동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처음 설정했던 연구질문과 관련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행본 OA 비즈니스 모델과 도서관의 재정적 역할을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는 저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BPC 방식에서 벗어나, 도서관이 재정 조정자나 집합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특히 TOME와 같은 기관 지원 모델이나 D2O와 같은 컨소

사업 기반의 집합 투자 모델은 도서관이 개별 구매자가 아닌 생태계 유지의 핵심 투자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단행본 OA와 관련된 도서관의 역할은 재정 조정자, 집합적 투자자, 지식 인프라 파트너, 출판 전략 설계자, 가치 기반 평가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중 도서관 컨소시엄 모델과 회원제/공유 인프라 모델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가장 주도적이고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할은 해외의 주요 프로젝트인 TOME, D2O, Fund to Mission 등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참여의 초점과 성격을 기준으로 보면 도서관의 역할은 수동적 예산 집행 위주인 재정 조정자에서부터, 집합적 행동을 주도하는 공동 투자자와 가치 평가자를 거쳐 출판 공정에 직접 관여하는 전략 설계자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펼쳐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도서관 출판 현황에 대한 LPD 연구 데이터셋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 출판 서비스에서 단행본과 오픈 교육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속한 모 대학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학술단행본과 교재용 단행본에 대한 도서관의 출판 활동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서관이 전략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상업적 출판 시장에 대응하여 공공 지식의 직접 생산자 역할을 선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이다.

넷째, 맨체스터 대학 전략 프레임워크 등의 분석을 통해, 이제 도서관의 OA 지원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형평성, 투명성이라는 명확한 가치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전략적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서관의 자원 배분이 가치 기반 투자로 진화하면서 명확한 전략적 판단 기준이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 6.2 국내 단행본 OA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해외의 역동적인 변화와 달리, 국내 학술단행본 생태계는 심각한 생산 및 유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 대학 전임 교원의 연구 실적이 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편향되면서 단행본 저술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는 주요 대학출판부의 출판 활동이 과거에 비해 급감하고(심원식 외, 2016), 한국대학출판부 협회 회원교 수도 2002년 78개에서 2024년 47개로 줄어든 것(최태범, 2024)에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정제와 전자자료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학술단행본의 주요 시장인 도서관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유료 판매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단행본 출판 모델은 한계에 봉착했다. 교재 출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PDF 파일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이용 행태 때문에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불법복제 방지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철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내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정부출연연구소나 공공기관의 공개 보고서, 그리고 K-MOOC와 같은 공개 교육자료 형태의 단행본 수준 콘텐츠 공개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또한 온라인 서점에서 가격이 0원으로 유통되는 일부 학술단행본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

도들은 개별 기관이나 플랫폼 단위로 파편화되어 있어 이용자의 발견성이 낮고, 체계적인 OA 정책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즉, 국내에서는 콘텐츠가 공개된 사례는 있으나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고 확산시킬 단행본 OA 생태계는 시도조차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출판 시장의 고사를 막고 지식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검증된 비BPC 기반의 집합적 OA 모델 도입이 절실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국내 도서관이 단행본 OA와 관련하여 취해야 할 전략적 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파편화된 단행본 공개 모델의 통합 및 발견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서점 등에 흩어져 있는 단행본 원문 데이터를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체계로 통합하고, 도서관의 검색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가 별도의 플랫폼을 찾지 않아도 Path to Open 사례처럼 도서관 서비스 접점에서 OA 단행본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도서관과 대학출판부 간의 상생형 OA 전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출판부가 겪고 있는 전문 인력 유지의 어려움과 원고 수급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은 출판 전략 설계자로서 대학출판부의 학술도서를 OA로 전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한국형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내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대학출판부의 전문 인력 부족은 이러한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한계가 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개별 대학 단위의 고립된 사업 추진보다는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대학 연합체 형태의 공동 전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재정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 출판의 단계적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 해외 LPD 데이터셋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관은 부분적으로 출판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도 대학 내 연구소의 연구성과 단행본이나 강의용 교재 위주로 직접 출판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일부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고사 직전의 대학출판부 업무를 인수하여 직원 업무 분장에 포함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성이 전무하지는 않다. 그러나 도서관 내부의 출판 전문 인력 부재와 신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예산 압박은 도서관의 직접 출판 참여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비용의 문제는 현재 학술 단행본과 교재 구입에 지출되는 도서관의 수서 예산 중 일부를 투입함과 동시에, 학술 단행본 출판비는 연구성과를 출판해야 하는 교내 연구소의 사업비를 활용하고, 교재 출판비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과 유사하게 교육부의 정책 사업 공모를 통해 외부 재원을 결합하는 다원적 펀딩 구조를 확립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 연구는 단행본 OA가 단순히 지식을 무료로 개방하는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학술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전략적 행위임을 밝혔다. 해외 도서관들은 이미 집합적 행동을 통해 단행본 출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한국 도서관계 역시 분절된 공개 사례들을 정책적 프레임워크 안으로 통합하고, 출판

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적 맥락에 맞는 비용 분담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당국은 효과가 불확실한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 캠페인에만 치중하던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면서, 출판사와 도서관이 가치 기반의 평가를 통해 출판 전략을 재설계하고 지식 공유를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제에 집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서관이 지식의 공유와 보존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능동적인 가치 기반 투자자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내 학술단행본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투자 전략과 국내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보일 (2024).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4), 1-22. <https://doi.org/10.3743/KOSIM.2024.41.4.001>
- 박희진, 김지성 (2025). 공공데이터 관리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융합 교육과정 방향 연구: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정보관리학회지*, 42(4), 303-325. <http://doi.org/10.3743/KOSIM.2025.42.4.303>
- 배서영, 김지현 (2023). 한국의 국제 학술지 데이터 공유 정책 현황 및 편집인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0(3), 25-54. <http://doi.org/10.3743/KOSIM.2023.40.3.025>
- 심원식, 도슬기, 이선애 (2016). 국내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 출판에 대한 양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309-327.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309>
- 윤정원 (2024). 글로벌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학술지 국제화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41(3), 359-380. <http://doi.org/10.3743/KOSIM.2024.41.3.359>
- 이혜경, 이용구 (2023).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한 오픈 데이터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0(4), 429-450. <http://doi.org/10.3743/KOSIM.2023.40.4.429>
- 장문석 (2023).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과 실천: 한국어문학 학술지 오픈엑세스 전환과 '열린 공공성'의 지향. *한국학*, 46(4), 369-407. <http://doi.org/10.25024/ksq.46.4.202312.369>
- 장수현, 남영준 (2024). 일본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지침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3), 247-270. <http://doi.org/10.14699/kbiblia.2024.35.3.247>
- 정경희 (2023). 국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현황과 변화. *인문과학연구논총*, 44(2), 261-286. <http://doi.org/10.22947/ihmju.2023.44.2.010>
- 정경희, 이재윤 (2023). 국내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학술지 오픈엑세스 출판 전환 사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271-291. <http://doi.org/10.4275/KSLIS.2023.57.2.271>
- 정재민, 김원중 (2022). 토픽 성장 분석을 통한 오픈엑세스 분야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9(4), 75-97. <http://doi.org/10.3743/KOSIM.2022.39.4.075>

- 최태범 (2024.8.15). 대학가 만연한 교재 불법복제 막는다...저작권 보호 나선 스타트업. 머니투데이.  
출처: <https://www.mt.co.kr/future/2024/08/15/2024081417080632260>
- ACLS (2025). Path to Open: A history. Available: <https://www.acls.org/path-to-open-a-history/>
- Adams, N. (2026, January 23). 2026 library publishing directory: Call for entries. LPC Blog.  
Available: <https://librarypublishing.org/2026-library-publishing-directory-call-for-entries/>
- Adema, J. & Stone, G. (2017). The surge in new university presses and academic-led publishing: An overview of a changing publishing ecology. *LIBER Quarterly*, 27(1), 1-20.  
<https://doi.org/10.18352/lq.10197>
- Amaral, F. B. M. do & Furnival, A. C. M. (2023). Business models for publishing open access books used by Brazilian university presses. *RDBCI: Revista Digital De Biblioteconomia E Ciência Da Informação*, 21, Article e023010. <https://doi.org/10.20396/rdbci.v21i00.8673169>
- Ball, C., Decker, S., McGinty, S., & Withey, L. (2019). Toward an Open Monograph Ecosystem (TOME): A Community Initiative.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vailable: <https://www.aau.edu/key-issues/toward-open-monograph-ecosystem>
- Batterbury, S. P. J., Pia, A. E., Wielander, G., & Loubere, N. (2025). Against book enclosures: Moving towards more diverse, humane and accessible book publishing. *Area*, 57(3), Article e12916. <https://doi.org/10.1111/area.12916>
- Błaszczczyńska, M., Złodi, I. M., Morka, A., Proudman, V., & Stone, G. (2023). Collaborative models for OA book publishers (Version 2.0). Available: <https://doi.org/10.5281/zenodo.7780754>
- Booth, P. (2024). A strategic framework for supporting open access monographs: Library acquisitions principles and assessment criteria. Presentation at RLUK Annual Conference 2024. Available: [https://nag.org.uk/wp-content/uploads/2024/11/Booth\\_StrategicFrameworkForSupportingOpenAccessMonographs\\_Nov2024.pdf](https://nag.org.uk/wp-content/uploads/2024/11/Booth_StrategicFrameworkForSupportingOpenAccessMonographs_Nov2024.pdf)
- Brand, A. (2021, March 2). The MIT Press launches Direct to Open. *EurekaAlert!* Available: <https://www.eurekaalert.org/news-releases/481261>
- Brown, L., Dayan, M., McLaughlin, B., Schonfeld, R. C., Sherer, J., & van Rijn, E. (2023, September 19). Print revenue and open access monographs: A university press study. Available: <https://doi.org/10.18665/sr.319642>
- Collins, E. & Stone, G. (2014). Open access monographs and the role of the library. *Insights*, 27, 11-16. <https://doi.org/10.1629/2048-7754.163>
- COPIM (2023). Community-led open publication infrastructures for monographs. Available: <https://archive.copim.ac.uk/>
- Cupples, J. (2025). Uneven geographies of power in UK higher education's conjunctural crisis:

- A response to Gandy. *Area*, 57, Article e12934. <https://doi.org/10.1111/area.12934>
- Estelle, L., Jago, D., Jones, R., Laakso, M., Snijder, R., & Wise, A. (2025). How to begin the OA transition: a guide for smaller and specialist publishers. *Zenodo*. <https://doi.org/10.5281/zenodo.14679094>
- Eve, M. P. (2014). *Open access and the humanities: Contexts, controversies and the fu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1316161012>
- Ferwerda, E. (2019, June 26). OA monographs and the role of libraries. LIBER Annual Conference 2019 Workshop: Open Access Books in Academic Libraries, Dublin, Ireland. Available: <https://doi.org/10.5281/zenodo.3354194>
- Ferwerda, E., Pinter, F., & Stern, N. (2017). A landscape study on open access and monographs: Policies, funding and publishing in eight European countries. *Knowledge Exchange*. Available: <https://doi.org/10.5281/zenodo.815932>
- Fyfe, A., Coate, K., Curry, S., Lawson, S., Moxham, N., & Røstvik, C. M. (2017). Untangling academic publishing: A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ercial interests, academic prestige and the circulation of research. University of St Andrews. Available: <https://doi.org/10.5281/zenodo.546100>
- Gandy, M. (2023). Books under threat: Open access publishing and the neo-liberal academy. *Area*, 55(4), 565-570. <https://doi.org/10.1111/area.12877>
- Gandy, M. (2025). Ex Libris: Books, creativity and academic freedom. *Area*, 57, Article e70013. <https://doi.org/10.1111/area.70013>
- Greco, A. N. (2024). *Scholarly Publishing in the Humanities, 2000-2024: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ham: Palgrave Macmillan.
- JSTOR (2023). Path to Open: A new model for open access books. Available: <https://about.jstor.org/path-to-open/>
- Knowledgespeak (2025, May 7). Duke University Press to join MIT Press's Direct to Open program in 2026. Available: <https://www.knowledgespeak.com/news/duke-university-press-to-join-mit-presss-direct-to-open-program-in-2026/>
- Library Publishing Coalition (2024a). 2024 library publishing directory. Available: [https://librarypublishing.org/wp-content/uploads/2024/12/Library-Publishing-Directory\\_2024\\_web.pdf](https://librarypublishing.org/wp-content/uploads/2024/12/Library-Publishing-Directory_2024_web.pdf)
- Library Publishing Coalition (2024b). Library Publishing Directory research data set (2014-2024) [Data set]. <https://librarypublishing.org/lp-directory>
- Library Publishing Coalition (n.d.). Library Publishing Coalition Homepage. Available:

- <https://librarypublishing.org/>
- Lippincott, S. K. (2017). *Library as Publisher: New Models of Scholarly Communication for a New Era*. Charleston Briefings.
- Maron, N. (2023). *TOME Stakeholder Value Assessment: Final Report*. Washington, DC, and New York: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nd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ses.
- Michigan Publishing (2023). *Three years of Fund to Mission: Reaching 75% open access*. Available: <https://www.publishing.umich.edu/stories-of-impact/three-years-fund-to-mission>
- MIT Press (2025a). *Impact D2O 2025: A report on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Direct to Open collective action model*. Available: <https://mitpress.mit.edu/open-access-at-mit-press/d2o-impact-report-2025/>
- MIT Press (2025b, May 6). *Duke University Press to publish open access monographs through MIT Press's Direct to Open (D2O)*. Available: <https://mitpress.mit.edu/duke-university-press-to-publish-open-access-monographs-through-mit-presss-direct-to-open-d2o/>
- MIT Press (2026). *Partner publishers*. Available: <https://direct.mit.edu/books/pages/direct-to-open-partners>
- Molls, E. & McCreedy, K. (2024). *The open monograph distribution and acquisitions gap: A look at TOME (Toward an Open Monograph Ecosystem) titl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Scholarly Communication*, 12(1), Article eP15492. <https://doi.org/10.31274/jlsc.15492>
- OAPEN (2020). *Business models for OA book publishing*. Available: <https://oabooks-toolkit.org/lifecycle/article/10432084-business-models-for-open-access-book-publishing>
- open-access.network (2025). *Business models for books*. Available: <https://open-access.network/en/information/financing/business-models-for-books>
- PALOMERA (2024). *The PALOMERA recommendations for open access books*. OAPEN. <https://doi.org/10.5281/zenodo.13936640>
- Penier, I., Eve, M. P., & Grady, T. (2020). *COPIM: Revenue models for open access monographs 2020 (v2)*. Available: <https://doi.org/10.5281/zenodo.4455511>
- Research Information (2025, January 27). *MIT Press's Direct to Open reaches annual funding goal*. Available: <https://www.researchinformation.info/news/mit-presss-direct-to-open-reaches-annual-funding-goal/>
- Sherer, J. (2023, March 23). *Open access for monographs is here. But are we ready for it? The Scholarly Kitchen*. Available: <https://scholarlykitchen.sspnet.org/2023/03/23/guest-post->

- open-access-for-monographs-is-here-but-are-we-ready-for-it/
- Siegert, O. (2019, June 26). Libraries and OA monographs: a framework for library activities. LIBER Annual Conference 2019 Workshop: Open Access Books in Academic Libraries, Dublin, Ireland.
- Snijder, R. (2016). Revisiting an open access monograph experiment: Measuring citations and tweets 5 years later. *Scientometrics*, 109(1), 1855-1875.  
<https://doi.org/10.1007/s11192-016-2160-6>
- Strothmann, M. (2025, January 27). How libraries are funding open monographs at the MIT Press. *Katina Magazine*. Available: <http://doi.org/10.1146/katina-012725-1>
- Thompson, J. B. (2005). *Books in the Digital Age: The Transformation of Academic and Higher Education Publishing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Polity.
- TOME (n.d.). TOME: Toward on Open Monograph Ecosystem. Available:  
<https://www.openmonographs.org/>
- UKRI (2023, November 15). UK Research and Innovation open access policy. Available:  
<https://www.ukri.org/publications/ukri-open-access-policy/uk-research-and-innovation-open-access-policy/>
- UKSG (2024, October 20).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reports on societal impact of their OA book programme. *UKSG eNews*, 575. Available:  
<https://www.uksg.org/newsletter/uksg-eneews-575/university-of-michigan-press-reports-on-societal-impact-of-their-oa-book-programme/>
- University of Manchester Library Office for Open Research (2024).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cquisition of open access monographs. Available:  
<https://documents.manchester.ac.uk/display.aspx?DocID=72627>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2). The monograph and the mission: University of Michigan pledges \$1.2 million to fund open access book publishing. *The Scholarly Kitchen*. Available:  
<https://scholarlykitchen.sspnet.org>
- Verbeke, D. & Mesotten, L. (2022). Library funding for open access at KU Leuven. *Insights*, 35(1), 1-10. <https://doi.org/10.1629/uksg.565>
- Wilmott, C. (2025). Beyond open access: Book publishing in a metric culture. *Area*, 57, Article e12943. <https://doi.org/10.1111/area.12943>
- Yoon, J., Rorissa, A., Kim, N., & Chung, E. (2025). Characteristics of OA diamond journal publishing in non-English-speaking countries. *Libri*, 75(1), 51-66.  
<https://doi.org/10.1515/libri-2024-002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i, Seo Young & Kim, Jihyun (2023). A study on the status and editors' perceptions of the data sharing policies of international journals published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3), 25-54.  
<http://doi.org/10.3743/KOSIM.2023.40.3.025>
- Choi, Tae Bum (2024, August 15). Startup takes on copyright protection to stop rampant illegal copying of textbooks on campus. *Money Today*. Available:  
<https://www.mt.co.kr/future/2024/08/15/2024081417080632260>
- Chung, Jaemin & Kim, Wan Jong (2022). Understanding research trends of open access via topic growth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4), 75-97.  
<http://doi.org/10.3743/KOSIM.2022.39.4.075>
- Jang, Moon-seok (2023). Ideology and practice of knowledge sharing of Korean studies: Transition to the open access publishing of the journal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he idea of "Open Publicness". *Korean Studies Quarterly*, 46(4), 369-407.  
<http://doi.org/10.25024/ksq.46.4.202312.369>
- Jang, Su Hyun & Nam, Young Joon (2024). A study on the analyzing research data guidelines of Japanese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3), 247-270. <http://doi.org/10.14699/kbiblia.2024.35.3.247>
- Joung, Kyoung Hee & Lee, Jae Yun (2023). A case study on the converting journals to open acces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archival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2), 271-291.  
<http://doi.org/10.4275/KSLIS.2023.57.2.271>
- Joung, Kyoung Hee (2023). Current status and changes of open access in Korean journal. *The Journal of Humanities*, 44(2), 261-286. <http://doi.org/10.22947/ihmju.2023.44.2.010>
- Kim, Bo-il (2024). A study on collection development of local collection in the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4), 1-22. <https://doi.org/10.3743/KOSIM.2024.41.4.001>
- Lee, Hyekyung & Lee, Yong-Gu (2023). Intellectual structure analysis on the field of open data using co-wor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4), 429-450. <http://doi.org/10.3743/KOSIM.2023.40.4.429>
- Park, Hee Jin & Kim, Ji Sung (2025).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open government data

management: Directions for a convergent curriculum from 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2(4), 303-325. <http://doi.org/10.3743/KOSIM.2025.42.4.303>

Shim, Wonsik, Do, Seul Ki, & Lee, Sun Ae (2016). A quantitative analysis of scholarly monograph publishing by university press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309-327.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309>

Yoon, JungWon (2024). Global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cholarly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359-380. <http://doi.org/10.3743/KOSIM.2024.41.3.359>

